

엘리트스포츠 영역의 법정의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향: 스포츠지도자의 학습피로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compulsory education in elite sports area: Focusing on the learning fatigue of sports coaches

임다연(극동대학교 교수) · 임효성*(안양대학교 교수)

Dayoun Lim *Far East Univ.* · Hyosung Lim* *Anyang Univ.*

요약

본 연구는 엘리트스포츠 영역의 법정의무교육 현황을 이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직 스포츠지도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전사 후 주제분석방법에 의해 분석이 실시되었다. 상기한 과정을 거쳐, 현행 법정의무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 스포츠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반도핑교육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내용적 측면, 시간적 측면, 방법적 측면에서 현장에서 인식하는 법정의무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학생자들이 호소하는 학습피로가 현행 법정의무교육의 지배적인 문제임이 나타났고 매년 복수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법정의무교육의 피학생자로부터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개선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쓰이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ompulsory education in the elite sports area and to derive improvement from it.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sports coach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after transcription. Through the above process, the current compulsory education was classified into sport ethics education, sport human rights educati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anti-doping educati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s to compulsory education recognized in the field in terms of content, time, and methodology were derived. In this study, the learning fatigue complained by learners was found to be a dominant problem in the current compulsory education. The various perceptions of trainees on compulsory education conducted annually by multiple organization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study. This study will deliver the voices of the field gathered from learners to compulsory education and be used as valuable primary data for improving education.

Key words : Elite sports, Compulsory education, Current status, Improvement, Learners, Sports coaches, Learning fatigue

* limhyosung@gmail.com

1. 서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라고 정의한다(국립국어원, 2022). 교육은 자발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타의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고, 받아야 하기도 한다. 특히 법률로써 그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교육은 피해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정 의무교육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여러 불만소리를 야기하고 있다. 모든 의사들은 연수교육 이외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진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무교육을 무려 19가지나 받아야 한다.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만든 법조항이지만 각종 법률로 정해 놓은 수많은 법정교육을 매년 수행하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이명진, 2022.09.21.). 그러다보니 서울시 동작구의회와 서초구의회는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줄이거나, 단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 간소화 및 접근성을 향상해달라는 안건으로 들어나는 행정부담을 호소하였다(최화주, 2022.03.03.). 한편 지난 코로나가 한참 심각한 수준일 때, 서울시교육청은 정규교육 과정 외 의무교육을 면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성폭력예방, 보건, 학교폭력 예방 등 각종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만 50여건이고, 수업시수로 계산하면 연간 150시간에 이르는데 학교현장에서 모든 의무교육을 학사운영에 반영하기에 어려움은 크다는 것이다(송성환, 2020.09.09.).

한 대학교수는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컴플라이언스가 강조되면서 직원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조되는 추세이니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닌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의무교육은 법으로 계속 추가해도 무방한 것일까? 음주방지, 소방, 안전, 생명윤리, AI윤리, 환경보호 등등 좋은 취지라면 법으로 다 교육을 의무화해 버리면 그만일까? 허겁지겁 의무교육을 이수하며 개인의 자유와 법률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 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견해를 펼쳤다(천경훈, 2022.01.03.). 유사한 맥락에서 한 교육청 소속 변호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지산, 2020.08.05.). 물론 법정 의무교육의 취지와 그 중요성은 각각 존재하겠지만, 실제 그 교육의 운영과 피교육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작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스포츠계는 어떠한가? 체육인을 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두 차례에 걸친 국민체육진흥법의 재·개정에 따라 시행된 법정 의무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2021년 2월 시행된 제2차 개정법에서는 선수,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동년 6월 시행된 제3차 개정법에 따라 학

교,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이상철, 2021.06.09.).

스포츠 영역의 법정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지만, 현장과 피교육자를 위한 어떠한 개선노력은 구체적으로 담지되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날이 증가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양, 그리고 확대되는 법정 의무교육 영역에 따라 해당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목소리에 비해 학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추미경, 김인형(2016)은 학교 안전사고관리법에 의해 실시되는 수영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은난순(2020)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의무교육 개선방안을 조사하였고, 주연선, 손영은, 오승환, 김민정(2022)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스포츠 분야 뿐만 아니라 법정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다수의 분야에서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교육이 당초의 취지와 목표가 갖는 무게감에 비해 피교육자의 인식과 개선요구를 청취하는 것조차 간과되는 것은 아닌지의구심이 든다. 피학습자 중심의 교육실효성의 보완보다는 연간 법정 의무교육 실시횟수, 교육이수인원, 의무교육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1)를 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에 청렴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직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가 있자, 소위 힘 있는 부처로 알려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이 직원 대상 청렴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권익위에 요청된 청렴교육이 20여건에 이른다. 각급 기관이 소속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위 내용은 약 10여년 전의 발표임에도 크게 위화감이 없다.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교육만을 강조하고 그 강도만 높이려 하는 접근에 그치고 있다. 스포츠 영역의 법정 의무교육이 큰 폭으로 실시되게 된 계기는 2020년 한 선수의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과거를 답습할 것인가?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교육은 엘리트스포츠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에는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 제6항(체육지도자의 재교육)에서는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제18조

제11항(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15조(도핑 방지 활동)에서는 “②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는 사항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기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 중인 법정 의무교육을 수년간 이수해온 체육지도자로부터 현장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법정 의무교육이 최소화되어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과 체육계의 교육수준 및 문화의식이 고도화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가 체육계 법정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데 있어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스포츠 분야에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의 현황을 이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1. 연구참여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포츠 영역의 법정 의무교육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1조 제6항에서 체육지도자에 대한 연수과정, 재교육과정에서 일부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을 체육지도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중 2022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유목적표집법에 의해 현직지도자 12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연구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개인적 특성

연번	종목	경력	성별	자격
1	스노우보드	7년	남	1급
2	수영	16년	남	1급
3	근대5종	15년	남	1급
4	루지	2년	여	2급
5	축구	8년	남	2급
6	야구	5년	남	2급
7	력비	2년	여	2급
8	육상	4년	남	2급
9	레슬링	10년	남	1급
10	브레이킹	10년	남	2급
11	펜싱	9년	남	2급
12	탁구	6년	남	2급

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1) 자료수집

연구주제에 관한 각종 논문, 기사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이외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주관단체, 각 종목단체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 질문지는 학습피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질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지도자가 갖는 특수한 요인들(예: 처우, 근무환경, 선수지도실적)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었기에 모든 면담은 각 연구참여자자가 선호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에서 만난 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자에게 연구개요를 한번 더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서면작성하였다. 면담과정의 녹취를 허락한 연구참여자자의 면담내용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녹음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1인당 50분에서 7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8월 첫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총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자료분석

연구참여자자의 성명은 제시하지 않고, 종목만을 제시한 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녹음된 면담 내용을 전체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을 이용하였다(이영직, 임다연, 2021). 주제분석방법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질적분석방법 중 핵심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Braun & Clarke, 2006). 이러한 주제분석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6단계에 걸쳐 적용하였다.

첫째, 면담 전사 내용을 연구자가 친숙해지기 위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었다. 둘째, 첫 코딩 작업을 위해 녹취록을 보면서 주요 결과를 코드로 잡고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화를 시도했다. 셋째, 코딩화 작업을 통해 모아진 코드를 바탕으로 주제를 추출하였다. 넷째, 추출된 잠재적 주제군들을 재검토하여 최종 주제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검토한 주제들의 명칭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주제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표현

하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면담 내용을 골라 각각의 주제에 넣어 기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된 자료는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1인, 체육정책 전공 박사 1인에게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며(Cypress, 2017),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가 전사된 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끝으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면담과 녹음을 진행하고, 연구참여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III. 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에서는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에서 느끼는 피학습자들의 학습피로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매년 복수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에서 학습피로에 관한 다양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정 의무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 스포츠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반도핑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를 내용, 시간, 방법적 측면에서 각각 기술하였다.

1. 법정 의무교육의 내용적 측면

1) 스포츠윤리교육

스포츠윤리교육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종목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이수하고 있다. 지도자, 프로선수, 심판, 프런트, 학부모, 초등선수, 중고등선수, 대학선수로 나뉘어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종목의 지도자들에게는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한 비교적 좋은 반응이 었 보였다. 반면, 프로종목이 아닌 타종목 지도자들의 경우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KBO에서 진행하는 다른 소양교육들보다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주로 진행이 되다보니 틀어놓고 있는 경향이 크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PPT의 퀄리티도 높았던 것 같고요. 당시 반응도 좋았어요.” (야구)

“스포츠윤리교육이요? 글썽요.. 들었던 것 같은데, 스포츠인권, 부정방지교육 뭐 그런 거랑 같은 교육 아닌가요?.” (수영)

“글썽요, 스포츠윤리교육, 스포츠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그 때 그 때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육상)

실제 스포츠현장의 지도자들은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 스포츠인권, 도핑, 성폭

력예방 등의 교육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내용에 대한 차별성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교육별 내용에 대한 차이와 특성을 더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스포츠인권교육

현재 전문 및 생활 스포츠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스포츠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윤리 런” 사이트가 개설되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스포츠인권, 스포츠폭력, 스포츠성폭력, 예방·대처 방법으로 시간은 1시간이며, 교육과정명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스포츠윤리센터 런, 2022). 대상은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심판,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경기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스포츠윤리센터 런, 2022). <표 2>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공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요약한 것이다.

“스포츠인권교육이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지 성폭력 예방교육이예요 결국. 성폭력 내용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폭력만이 스포츠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니 성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하면 아... 또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펜싱)

“보통 스포츠인권의 정의? 개념?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성폭력, 성폭행, 폭행 등 개념 정의하고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정도만 기억나요.” (루지)

“저희 종목은 이번에 종목단체에서 종목 맞춤형 스포츠인권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지도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이나 사례가 저희 종목으로 제시되니 집중도도 높았구요. 근데 여기저기서 너무 또 많이 들으니까 이걸 또 들어야 하나 싶긴 했죠.” (근대5종)

현재, 지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교육이 바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진행되는 스포츠인권교육이다. 그 내용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교육내용은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폭력 또는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으면 스포츠인권을 지키고 있다는 수동적 인식을 줄 수 있다. 스포츠인권교육은 스포츠윤리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는 차별되는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의식 확립을 위한 스포츠인권의 개념 및 정의, 스포츠인권 사례, 스포츠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제안한다.

표 2. 스포츠윤리센터 내 법정 의무교육 소개 요약

구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특별과정)	체육지도자 재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제10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교육목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유형을 알고 유형별 대처 및 지도 방법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음	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인권침해 유형을 알고 예방·대처 방법을 지도환경에 접목할 수 있음	스포츠 인권을 알고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음
교육대상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합격자 중 연수 과정의 일부 면제자	체육지도자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심판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경기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교육주기	해당자에 한 하여 매 년 2차례 진행(동계/하계)	2년(2년에 1번만 이수)	1년
교육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교육방식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교육장소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에듀 사이트('23년부터 본 학습사이트에서 교육예정)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스포츠윤리센터 교육장
교육일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연간 일정에 따름	연간 일정에 따름	연간 일정에 따름
교육내용	스포츠인권(45분), 스포츠폭력(45분), 스포츠성폭력(45분), 처벌사례 및 피해자 지원(45분)	스포츠인권(45분), 스포츠 성·폭력(45분), 처벌사례 및 피해자 지원(45분), 노인 스포츠윤리(45분), 유소년 스포츠윤리(45분), 장애인 스포츠윤리(45분), 전문·생활 스포츠윤리(45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60분)

3) 성폭력예방교육

2019년 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사건 이후, 이를 계기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중점을 둔 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이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 스포츠지도자는 교육내용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은지 너무 오래되서 기억안나는데요. 3개월 넘었으니까.. 어 제일도 잘 기억못하는데요 뭐. 그 때 강사님은 기억이 나는데 뭘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스노우보드)

“성폭력안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포함되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 들었는데, 그 차이를 강사님이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 자주 듣는 단어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었 구나를 느꼈던 계기였어요.”(레슬링)

서효민, 차재혁(2021)은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스포츠인들의 성의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은 성폭력의 개념 이해와 성폭력 사례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추후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의식 등의 인식개선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의 스포츠지도자의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반도핑교육

반도핑교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반도핑교육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진 않아 여느 교육과 다소 상이한 피로를 호소하였다. 동일년도 중복 수강으로 인한 것은 없으나,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피로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핑교육 중요한 건 알죠. 아는데, 맨날 똑같아요 내용이. 약 처방 받기 전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금지약물 인지 알아봐라. 보충제나 한약은 안나온다. 안나오는건 위험하다. 이게 다예요. 조금씩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썽요, 교육 듣는 입장에서 크게 다른걸 모르겠는데요.”(스노우보드)

“중요한걸 아니까 매번 저도 듣고, 선수들도 듣게 하는데 같은 내용이다보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이 교육을 들었다.

하고 증빙이 필요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정도?”(탁구)

천윤석, 강성기, 이근일, 김종규(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유무에 따른 도핑인식의 차이에서 도핑교육을 받을수록 인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면 그 효과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 법정의무교육의 시간적 측면

1) 법정의무교육 시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6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동 장관이 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예방교육에는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이와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심판 등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의 2). 그러나 이에 대해 남기연, 유소미(2020)는 이와 같은 예방교육 시스템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다뤄지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내용인 스포츠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예방 및 대처 방안, 주요 사례 및 처리결과 등의 모든 내용을 정해진 소수의 시간, 즉 1년에 1회, 1시간만으로 교육목적의 달성한다고 담보하기 어렵고, 온전한 교육성취를 이루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남기연, 유소미, 2020). 아울러 본 교육은 피학습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한데, 매년 1시간 수준의 교육으로는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다.

“한 번 교육 들으면, 1시간 정도 듣는 것 같아요. 50분? 근데 문제는 하루를 풀로 비워놓고 오전부터 미디어교육, 도핑교육, 인권교육, 윤리교육, 안전교육 등등을 꼭 들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긴 해요.” (루지)

“보통 강사님들 오시면, 1시간 정도 교육하고, 길면 2시간 정도 교육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 스케줄 중간에 꾸역꾸역 시간을 배정하다보니까 피곤해요. 집중도 잘 안되고.” (육상)

한편 일부 지도자들이 각 종목단체에서 진행되는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9시간씩 양일간 몰아서 여러 주제의 교육을 듣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피학습자의 소집하는 집합교육을 수시로 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적인 부담이 있어 현재 방식의 교육운영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연구참여자는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구성 하에 법정의무교육 이수하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효율적인 교육구성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교육일정 안배가 시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2) 법정의무교육 빈도

현재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스포츠윤리교육 매년 1회, 스포츠인권교육 매년 1회, 성폭력예방교육 매년 1회, 반도핑 교육 매년 1회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목별 차이는 있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스포츠인의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라는 적은 빈도이지만, 교육을 이수하는 스포츠선수 및 지도자의 입장에선 1년에 10회까지도 동일한 주제의 교육을 이수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듣느라고 미치겠다니까요. 정말. 1년에 스포츠인권교육만 몇 번을 듣는지 몰라요, 거짓말 안하고 우리 종목 단체에서 듣지 대한체육회에서 듣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듣지, 직장운동부 지도자라고 또 듣지, 전국규모의 대회 열리면 모아놓고 또 듣지.. 스포츠인권교육만 7-8번 들었다니까요. 매년 이렇게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듣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대니까요.” (근대5종)

법정의무교육인만큼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수한 교육을 다른 역할을 또 맡고 있다고 하여 동일하게 또 이수할 경우 해당 교육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온라인 의무교육의 경우 역할별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을 재차 이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또는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시스템 도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정의무교육의 방법적 측면

1) 온라인 교육

스포츠선수 및 지도자는 매년 등록기간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시스템되어 있다.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에서 각 종목을 클릭하여 스스로 선수등록 신청 또는 지도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포츠인권교육과 도핑방지교육이 수료 되어야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총 몇 분을 듣는지, 이게 무슨 교육인지 몰라요. 매년 듣지만. 그냥 켜놓고 있는거죠. 예전에는 그냥 한번에 꼭 재생되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화살표를 눌러줘야 하거든요. 귀찮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보겠어요? 단짓하다가 한번씩 누르던가 아니면 밑에 코치 시켜서 넘기는거죠 뭐.”(레슬링)

“저 그거 매년 듣는데, 매년 똑같은거 아니에요? 민화같은거..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보다가도 그냥 아~ 그거.. 하고 그냥 넘기게 되요. 바빠죽겠는데, 빨리 지도자 신청하고 훈련 들어가야하는데 귀찮죠 많이. 그렇다고 그걸 집중

해서 듣고 있기도 그렇고.”(수영)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원래 강사를 파견해서 대면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영상 시청으로 대체되었어요. 일단 편하긴 한데, 교육효과는 아무래도 대면 교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선수들까지 교육을 듣게 하는 상황에서 교육장소 잡고, 선수들 모으고, 강사님 오시면 강의실 세팅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줄긴해요. 그냥 선수들 모아놓고 영상만 틀어놓으면 되니까.”(야구)

해당 온라인교육 이외에도 프로종목의 경우, 협회에서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들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교육 영상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교육에 비해 번거로움이 줄어들지만, 교육효과에 있어서 대면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오프라인 교육

코로나 이전의 대다수의 법정 의무교육은 전부 대면강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며, 단 지도자등록시 대한체육회 등록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보여지는 동영상강의 이수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같은 주제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운영주체만 바뀐 채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여러 종목을 맡고 있는 경우 교육이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교육을 고스란히 또 들어야 하는 불필요함이 발견되었다.

“성폭력예방교육, 도핑교육, 인권교육, 윤리교육 등등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똑같은 거 또 듣고... 하면 교육효과가 과연 있을거냐는 의문이 들죠.”(력비)

“저는 비장애인 스포츠도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듣는데, 이 교육은 장애인 강사님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대요. 아니 장애인식개선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인식개선해야지, 교육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갔어요.”(탁구)

“온라인교육보다는 그래도 대면교육이 더 재미있고, 교육효과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마다 분위기가 다르긴하더라고요. 같은 교육이어도 흥미있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는 반면, 듣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불쾌해지는 순간도 몇 번 있었어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보일 때?”(브레이킹)

오프라인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보다 현장의 반응과 교육의 효과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견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거나 지도자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 교육에 대한 피로와 반감이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사 양성과정 시에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 스포츠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도자와의 교감

을 형성하여 법정 의무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엘리트스포츠 영역의 법정 의무교육 현황을 이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각 스포츠윤리교육, 스포츠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반도핑교육별로 법정 의무교육 현황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간적 측면에서 법정 의무교육 시간, 빈도로 구분하여 법정 의무교육 현황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방법적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 현황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현행 법정 의무교육으로부터 피학습자들이 호소한 학습피로가 지배적인 문제임이 나타났고, 매년 복수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적으로 피로는 과로로 정신이나 몸이 지쳐 힘들 내지 그런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22). 이 연구에서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자인 스포츠지도자가 호소한 학습피로는 동일한 교육내용 이수강, 각 종목 내지 소속급별로 특성화되지 못한 보편적 교육내용의 반복에서 주로 기인하였다. 즉, 동일년도에 여러 교육주체가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도가 바뀌어도 매년 동일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으로 인한 피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단체마다 교육을 운영해야 하고, 법정 의무교육이 담아야 할 주요사항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습자를 고려한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피로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지만, 피로의 누적은 학업성취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Nagane, 2004 재인용). 따라서 피학습자의 학습피로는 결국 본래 법정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표의 달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교과학습에서 발생하는 피로를 다루거나, 특정학습환경에서의 피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학학습 피로(science learning fatigue)를 개인 학습자가 과학학습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주의나 집중에 방해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김민철, 2011), 화상강의 피로도(zoom fatigue)는 실시간 화상 강의 플랫폼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습자 및 교수자의 신체적, 인지적 피로를 말한다(René, 2021 재인용). 이처럼 엘리트스포츠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서 학습피로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수반되길 희망한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도출된 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엘리트스포츠 영역의 확대된 다수의 교육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 관계자 등이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지도자 외 피교육자들의 인식을 살피고 본 연구결과와 차이는 부분은 물론 일치하는 부분까지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법정 의무교육 중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재교육과정

등 다수 법정 의무교육이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을 체육지도자로 한정할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 정례화된 법정 의무교육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학습피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사한 교육내용의 반복에 대한 학습피로를 호소하였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의 문제를 세분화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공학, 교육심리 등과 학제간 공동연구를 시도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타영역에서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의 현황과 선행된 연구를 고찰하여 해당 교육들이 거처온 문제점과 개선과정을 조사·정리해본다면 스포츠계 법정 의무교육 개선과 추후 방향설정에도 시사성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22).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2011). **공직사회 청렴교육 열풍**.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5796&nPage=482에서 인용.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 김민철(2011). **과학관과 학교에서의 과학학습 피로에 관한 요인체계 개발 및 과학학습 피로도 비교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남기연, 유소미(2020).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4(4), 165-190.
- 서효민, 차재혁(2021). AHP를 활용한 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성폭력 인식 평가요인 중요도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9(1), 657-668.
- 송성환(2020.09.09.). **서울시교육청 “재난 때 수업 외 의무교육 면제” 제안**. EBS NEWS,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20359245/N>에서 인용.
- 스포츠윤리센터 런. (2022). **교육과정 소개**. <https://edu.k-sec.or.kr/home/kr/main.do>에서 인용.
- 은난순(202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의무교육 개선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1(2), 57-64.
- 이명진(2022.09.21.). **‘법정 의무 교육’ 대폭 손봐야 한다**.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50>에서 인용.
- 이상철(2021.06.09.).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유죄 확정자 명단 공개**. 스포츠투데이, <http://www.stoo.com/article.php?aid=72817368983>에서 인용.
- 이영직, 임다연(2021). 유소년 엘리트 야구선수과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요인 탐색. **스포츠사이언스**, 39(3), 117-127.
- 주연선, 손영은, 오승환, 김민정(2022).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및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3(2), 297-321.
- 지산(2020.08.05.). **법률상 교원의 의무와 역할**.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6826>에서 인용.
- 천정훈(2022.01.03.). **온라인 의무교육 막판 이수기**.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5463>에서 인용.
- 천윤석, 강성기, 이근일, 김종규(2010).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교육에 따른 운동영양 보조물 이용과 도핑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9(4), 437-445.
- 최학주(2022.03.03.). **치과 구인난 해결·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목소리 여전**.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939>에서 인용.
- 추미정, 김인형(2016). 수영의무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및 운영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3), 161-176.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ypress, S. (2017). Rigor or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Perspectives, strategies, reconceptualization, and recommendations. *Dimensions of Critical Care Nursing*, 38(4), 253-263.
- Nagane, M. (2004). Relationship of subjective chronic fatigue to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95(1), 48-52.
- René, R. (2022). On the stress potential of videoconferencing: definition and root causes of Zoom fatigue. *Electronic Markets*, 32(1), 153-177.